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А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22년 1월 14일(금) (윤력 12월 12일) Пятница 14 января 2022г. № 1 (11968)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1월 12일 시작한 눈보라 14-15일 그칠 예정.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한 아파트 단지 마당.

(이예식 기자 촬영)

1월 13일은 러시아 출판의 날 존경하는 기자와 언론매체 종사자 여러분!

전문인의 날로서 1월 13일 '러시아 출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나라의 첫 신문은 1703년 1월 13일에 발행되었으며 이는 국내 새로운 산업 형성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언론은 우리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체 정보자료들 속에 중요한 소식들을 대중들에게 알리며,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을 위한 핵심적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와 정부기관과의 소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특별한 전문성과 참여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에 지역을 발전을 촉진시키시며 사할린주 언론매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창의적 성취와 충실한 독자와 건승을 기원합니다!

러시아 출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 눈보라 3일간 지속

지난 12일(수)부터 사할린의 여러 지역에 눈보라가 불기 시작하여 이로 인해 주내 일부 도로에서 차량 운행이 중단되었고, 공항이 폐쇄되었다.

지난 13일(목) 코르사코프·돌린스크·아니와·홉스크·네벨스크·마카로브 구역의 학교들은 비대면 수업을 했고 유즈노사할린스크 같은 경우 학교 학생들이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비대면으로 공부하게 되었다.

눈보라는 초속 12-17m/s, 25-30 m/s로 불었다.

풍설로 인해 유즈노사할린스크시는 많은 눈(월 평균의 34%정도)이 덮혀 시내, 시외 버스 일부는 12일 오후부터 운행이

중단되었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북부 지역 통행이 거의 중단된 상태며, 시내버스도 루고위에, 노위알렉산드롭스크, 달네예까지 운행을 못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는 현재 비상상태로 확정되어 긴급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제설작업에 200여 대의 제설장비를 운행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개인 차량의 운행이 막히자 큰 도로에 차를 버려두고 가서 제설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말까지 제설작업이 계속될 예정이며 기상청에 따르면 눈보라는 15일쯤 물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순신 기자)

사할린주 형성 75주년 기념 전람회 개최

사할린주 형성 75주년 기념 전람회 '역사의 이정표'가 오는 1월 19일(수)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15시에 열린다.

1947년 1월 2일 남 사할린 지역(북 사할린 및 쿠릴열도)이 점령하고, 하바롭스크 변경에서 분리되었다. 이렇게 사할린섬, 모네론, 툴레니, 전 쿠릴열도의 현재 국경이 형성되었다. 주가 형성되는 시기는 전후 복구 건설과 회복된 지역들에 행정기관 설립, 경

제 성장, 교육을 비롯한 의료 및 문화의 발전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다.

전시된 문서집, 자료집, 역사 개요, 사진집, 도서목록 지침,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 설명하는 정기 간행물이 방문객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전람회 개최식은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열리며 입장은 무료이고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단신

사할린 장애인 선수들 세계 선수권대회에 출전

러시아 패럴림픽위원회의 선발전으로 사할린 스포츠학교 스포츠 훈련센터 선수들이 국제 패럴림픽위원회가 개최하는 동계 스포츠 종목 세계 선수권대회 (장애인 동계 스포츠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러 떠났다. 선수권대회는 처음 열리며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스노우보드 종목에 따른 경기가 펼쳐진다.

사할린주는 경기에 4명의 선수들이 대표로 참가하는데 스노우보드 선수 블라디미르 이구쉬킨, 브세월로드 웨글로브, 알파인 스키 선수 알렉세이 부가예브, 알렉산드르 알라비예비이다. 세계 장애인 선수권대회는 1월 12일(수) -19일(수)까지 노르웨이의 릴레함메르에서 열린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두 개의 전기차 충전소 개소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전기차 충전소를 위한 2개 충전소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사할린스카야, 80번지 거리 종합 쇼핑센터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이미 33개의 전기 충전소가 가동 중이고 추가된 2개 충전소가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전기차량을 위한 전기 충전소 제반시설 구축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가 '환경보호'국가계획의 일환으로 주 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2월에는 시 지역에 전기차량을 위한 51개 종합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할린주, 코로나19 상황

사할린주 1월 11일 기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7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새해 연휴 기간에 환자들이 병원을 신속히 찾아가지 않고 연휴 이후 병원을 찾는 관례로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한 데는 대규모 행사 참여나, 타지역 및 해외 방문자들이 감염돼 돌아온 것과도 관련이 있다.

"대규모 행사는 감염의 주요 요인이다. 한 지역에서는 결혼식을 치른 후 결혼식 하객들이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건강을 생각해서 감염 위험 요소가 될 만한 상황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주 보건부 의학청장 정 밀라 청장이 말했다.

주보건부에 따르면 1월 12일 기준 코로나-19 상황은 다음과 같다. 신 확진자는 203명, 하루에 5명 사망. 확진자 1,352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중 531명이 입원치료를 하고있다. 현재까지 257,550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이 중 일일 통계로는 처음 접종을 받은 사람이 207명, 재접종(1차 접종 이후 6개월 경과)이 833명, 총 41,262명이 접종 받았으며, 백신 비축량은 101,175 회분이다.

<p>새고려신문</p> <p>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 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p> <p>1개월 구독료는 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p>	<p>2022년 신문 구독</p>  <p>(본사 편집부)</p>
--	---

2021년을 돌이켜보며

새고려신문에 게재된 사할린 한인 사회계의 주요 사업 · 행사 · 사건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계속 힘들어한 해였다. 대면 행사보다 비대면 행사가 훨씬 더 많았고 여러 나라들이 국경을 열었지만 서로 왕래하기에는 제한이 아직 많은 상황이었다.

2021년에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한러 수교 30주년 행사(2020년-2021년 한러 교류의 해)들이 2021년에도 계속 이어졌다.

이번에 2020년 말에 진행된 행사 기록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기사 2021년 초에 게재. **본사 편집부**).

2020년 12월 25일 - 사할린 주미술박물관에서 러시아 화가동맹원인 조성용 화가(사할린 한인 2세)의 <나의 세계, 나의 세대> 개인 전시회(수채화, 풍경화, 초상화 등 50여 점 작품)를 열었다. (본지 1월1일호).

2020년 12월 29일 - 러·한 수교 30주년의 해에 주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한민국영사출장소(소장 광기동)에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6개를 기증했다. (본지 2021년 1월 1일호)

2020년 말 - 한국에서 진 울리아 연구가가 지은 '사할린의 한인 디아스포라: 본국 귀한 문제 그리고 소비에트와 러시아 사회로의 통합'서적이 한국어 완역본(400쪽)으로 출간됐다. (본지 1월 15일호)

2021년 1월 16일 - 사할린

주한인협회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 2020년 사업보고와 2021년 사업 계획 심의 (본지1월 22일호)

1월 22일 - <에트노스> 한민족예술과 개설 25주년 기념 행사 개최.(본지 1월 29일호)

1월 24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주최, 사할린주 체스연합회 협력으로 한인디아스포라 체스 경기 진행.

1월 말 -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노인정 할머니들에게 식품 세트 전달(본지 1월 29일 호)

2월 16일 - 한국 외교부가 주최한 <2021년도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 설명회> 화상으로 진행. 회의에는 한국 외교부를 비롯해 법무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적십자 등 관계 부처 대표 비롯한 한국 내 전국 사할린동포 귀국동포연합회 대표

22명(여러 지역 회장),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로스토브-나-도누,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14명, 총 36명의 동포가 참가했다. 2021년도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으로 350명 영주귀국 가능 발표. (본지 2월 19일호)

2월 27일 - 주한인회, 영주귀국 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동포 350여 명 참석. (본지 3월 5일호)

3월 6일 - 사할린 한인 문화센터에서 한인 2세가 모인 가운데 사할린 한인들의 문제 해결을 추진을 위한 받기 그룹을 결성하기로 했다. (본지 3월 12일호)

3월 - 사할린 태권도 대표 선발팀 김 제니스 감독, '러시아 공훈 사범'정호 서훈. (본지 3월 19일호)

3월 19일 - 사할린 영주귀국자 600여 명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법 시행에 관련 청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음. (본지 4월 9일호)

3월 20일 - 주한인협회, 주한인청년회에서 우글레고르스크 및 사흐초르스크 어르신들을 찾아 쌀 50여 포대를 전달.

3월 23일 - 세르게이 라브로브 장관 방한하고, 24일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하는 <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개막식이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 외교부 공동 주최로 개최.(본지 3월 26일)

3월 30일 - 코르사코브 <에진스트위(단결)>스포츠 클럽 30주년 행사 개최.이춘식 관장이 태권도 및 민속 스포츠를 보급하는 클럽을 설립, 운영한다. (본지 4월 2일 호)

3월 30일 - 사할린동포 리 알렉산드르 감독, <개>희곡을 무대에 올림.(본지 4월 2일호)

4월 16-17일 - 사할린 국립대학교와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공동으로 한국에 관한 온라인 경시대회에 155명 참가신청. (본지 4월 23일호)

4월 23일 - 대한적십자사 주

최로 제17회 사할린 한인 동포단체 대표자 회의가 온라인으로 개최. 사할린동포단체 지도자들이 일본과 한국 정부에 보낸 결의문 발표.

4월 24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배(컵) 제1회 한민족 무술축제 펼침. (주최: <오스트로브>무술센터, 후원: 주한인협회)

4월 27일 - KIN(지구촌동포연대)이 사할린 월례 포럼을 진행키로 하고 첫 순서로는 <일제 강제동원 이전 시기 한인의 사할린 이주와 정착촌의 형성>이 주제였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러시아에서 한국문화제 'K-FEST. 2021'개최. 주최: 주러시아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 지사.

5월 4-7일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국보>와 <국가 승리>국제경연축제에서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의 <고려>타악기 팀이 슈퍼컵 수상. (본지 5월 14일호)

5월 8일 - 어버이날 행사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사할린주한인회 개최.

5월 13일 - 한국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국적과 주관으로 간담회 진행. 내용은 한국 내 체류 중 사할린동포 2세에게 복수국적 허용에 대해 언급. (본지 5월 21일호)

6월 26일 - 한국 보건부,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과 사할린주한인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건강관

리프로그램> 시작. 이날 아나와 1세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본지 7월 9일호) 관련 행사 7-8월간 돌린스크, 비코브 등지에서 계속 실시.

6월 30일 - 사할린동포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2021년 영주귀국 지원신청 마감일. (본지 7월 2일호)

6월 말 - 사할린 역사학자 나폴라이 비시넵스키의 마카로브 한인들에 대한 저서<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북방의 얼>이 한국어로 출간.

7월 18일-25일간 사할린한인 청소년 역사캠프 진행. 학생 28명 한인역사 현장 탐방, 한민족문화체험 등을 통해 사할린한인사와 민족 문화에 집중.

7월 24일 - 주한인협회, 흠스 크한인회, 주한인청년회가 전국 청년포럼 <오스트로브>일환으로 <뻘세>축제 진행.

7월 31일 - 제3차 사할린 한인 묘 현황 파악 사업으로 한국 국토정보공사 팀 사할린 방문. 사할린에서 한인 묘지 조사를 9월 11일까지 진행.

8월 15일 - 광복절. 이날 사할린주한인협회, 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코르사코브 한인회 관계자 등이 코르사코브 망향의 탑에 헌화.

8월 22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광복절 행사 개최. (본지 8월 27일호)

8월 28일 - 사할린주한인협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 사업보고와 2021년 영주귀국사업 관련 영상 간담회에 대한 보고 등.

(7면에 계속)

이 모 저 모

새해 연휴에 사할린 주민 1만 명이 병원 방문

새해 연휴 기간에 사할린 주민 1만 명 이상이 종합 진료소를 방문했다. 긴 연휴로 인해 사할린의 보건 시스템이 무너지는 대규모 환자 유입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모두 의료적 도움을 받았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의 새해 연휴에 진료를 받으려는 주요 환자들은 급성호흡기질환, 외상, 식중독과 관련하여 종합 진료소를 찾았다. 또한 산부인과의 전문 의료진들에게도 신년 연휴에 쉬는 없었다. 주내 신년 연휴 기간에 남아 58명, 여자 57명이 탄생해 출생아는 총 115명이다.

이 기간에 구급차의 출동은 7천 건 이상이나 되었고, 이중 거의 절반 건수가 주 중심지에서 이뤄졌으며 유즈노사할린스크 응급 진료소의 의료진들은 응급 호출로 총 3천114 회 출동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외상센터의 의료진들도 24시간 환자들을 진료했고,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579명의 환자가 외상센터를 찾았다.

부상 환자의 대다수가 겨울 스포츠 종목 애호가들로서 이중 알파인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는 사람들 중 14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또한 집에서 또는 음주 만취 상태에서 적잖은 주민들이 외상을 입었고, 마약 치료센터에서도 24시간 근무하며 의료 지원을 놓치지 않았다.

전 지역 종합진료소에서는 급성호흡기질환 환자 진료가 이뤄진 가운데 이들 진료 작업은 별도의 일정이 조직되었다. 1월 10일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정규 일정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1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обратились в поликлиники на новогодних каникулах

Более 10 тысяч островитян обратились в поликлиники во время новогодних праздников. Несмотря на колос-

сальную нагрузку, которая обрушилась на островную систем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связи с длинными каникулами, все обратившиеся получили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о время новогодних праздников в основном пациенты обращались за помощью в связи с ОРВИ, травмами и отравлениями. Не остались без работы в новогодние праздники и специалисты родильных домов. Во время каникул в области родились 115 малышей — 58 мальчиков и 57 девочек.

Более 7000 выездов совершили сотрудники службы скорой помощи в дни новогодних каникул. Почти половина случаев приходится на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 специалисты стан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ыезжали на вызовы 3114 раз.

Специалисты травмпунк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кже круглосуточно принимали пациентов. С 31 декабря по 9 января к ним обратились 579 человек.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травм — у любителей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Так, к врачам доставили более 140 человек, занимающихся горными лыжами или сноубордингом. Немало поврежденных островитяне получили в домашних условиях или находясь в состоянии алкогольного опьянения. Наркологическая служба также работала в круглосуточном режиме, оказывая неотложную помощь.

Прием пациентов с симптомами ОРВИ проводился во всех поликлиниках. Их работа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по отдельному графику. С 10 января все медучреждения ведут прием в штатном режиме.

연휴에 1만 3천 명의 사할린 주민들 체호브 센터의 연극 관람

사할린 체호브 국제극장에서 새해맞이 행사가 총 마무리되었다. 12월 23일(목)부터 1월 9일(일)까지 체호브 센터는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연극을 47회 공연한 가운데 관객 1만3천 명 이상이 연극을 관람했다.

집안의 어린이들에게 축하하기 위해 극장 측은 제드 모로즈(추위 할아버지)와 스네구로츠카(눈소녀)의 방문을 조직했다.

올해 새해의 마법사들은 34 가정을 방문하고 134명의 어

린 주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었다.

사할린 극장의 주요 무대에서 진행된 공연은 <마사와 위짜의 새해 모험>(6세 이상, 알렉산드르 아게예브 감독),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왕의 선물> (6세 이상), <성탄 이야기> (6세 이상), <제드 모로즈(추위 할아버지)를 못 믿는 꿈>(0세 이상)을 공연했다. 연휴 기간 성인들을 위한 공연작은 특별히 다채로운 가운데 대형 무대에는 <카바레의 겨울 파티>(18세 이상), <웃기는 돈> (16세 이상), <재단사 아가씨> (16세 이상), <용감한 청년 궁수-페도트에 대해>(12세 이상), <보임 보임>(16세 이상)과 신작 공연으로 <#사랑할 수 없어> (16세 이상) 등을 공연했다.

체호브 센터는 전통적으로 새해 명절에 자선활동을 하고 있는데 체호브 센터의 제드 모로즈와 스네구로츠카는 러시아 여성연맹의 대표들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아동들에게 축하하기 위해 주 아동병원을 방문했다. 성탄절에는 체호브 센터의 배우들이 다자녀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동화를 보여주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쿠릴 정교회 주교구의 주최로 새해 명절 프로그램이 사할린 국민 창작센터에서도 진행됐다.

13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посмотрели спектакли Чехов-центра на каникулах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театральном центре имени Чехова подвели итоги новогодней кампании. Всего с 23 декабря по 9 января Чехов-центр показал 47 спектаклей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которые посетили более 13 тысяч зрителей. Для поздравления ребят на дому театр организовал выезды Деда Мороза и Снегурочки. В этом году новогодние волшебники посетили 34 семьи и сделали счастливые 134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На главной островной сцене состоялась премьера постановки "Новогодние приключения Маши и Вити" (6+) (режиссер — Александр Агеев). Также были показаны любимые спектакли для детей "Царский подарок" (6+), "Рождественская история" (6+), "Медведь, который не верил в Деда Мороза" (0+).

(3면에 계속)

오로라 항공사, 극동지역 운항을 위한 보조금 59억 루블리 획득

연방 항공청(로스아비아씨야)이 2022년 극동지역 승객 운송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 선발에 오로라 항공사를 선정했다. 이 항공사는 36개 노선 운항을 목적으로 59억 루블리 이상을 지원 받게 된다.

주요 항공 노선들은 사하 공화국(야쿠티야), 부라치야, 하바롭스크, 프리모리 및 캄차트카 변경, 마가단, 사할린주의 행정 중심지들에서 인근 행정자치지역들의 소도시와 마을들로 향하는 왕복 항공노선이다.

운항 경쟁에서 오로라 항공사의 유일한 경쟁사는 이르쿠츠크를 거점으로 운항하는 '양가라'항공사였다. 오로라 항공사의 연방 본거지인 사할린 변경지역의 보조금을 받는 직항 노선은 오하, 노글리키, 샤희츠크에서 하바롭스크로 가는 항공편,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 블라고웨센스크, 소베츠카야 가완, 크라스노야르스크로 가는 항공편과 세웨로-쿠릴스크에서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로 가는 항공편이다.

보조금 지원 선발에서 오로라 항공

사는 실질적으로 운항할 항공사들과 우호적 연계를 위한 '통합 브랜드'의 역할을 발표했다. 예를 들면 야쿠치야 공화국에서 지속적으로 운항할 '야쿠치야' 항공사, 캄차트카 반도의 내륙과 연계를 담당할 '캄차트카 항공사', 북 쿠릴열도로 헬기를 운항할 '아비아 셀프'가 있다.

이렇게 오로라 항공사는 지난해 내내 사할린주와 연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극동지역 항공편 조성 및 운항을 위해 노력한 극동지역 운항의 통합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신PD의 K 리포트]

'머박' '커여운' 아이들

2030세대를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트렌드의 최전방에서 늘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내고 유행시키는 세대이니, 음악, 패션, 놀이 등 문화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해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뜨거운 구애가 펼쳐지는 쪽은 정치권입니다.



올 3월 대통령 선거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현상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흔히 'MZ세대'로도 불리는 이들이 취업, 젠더, 부동산, 경제정책, 공정 등 이슈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다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새겨서 듣고 실행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귀를 크게 열고 마음을 다해 듣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MZ세대를 지칭하는 말들을 보면, '디지털', 'SNS', '워라벨', '소확행' 등 다소 세련되고 자기만족적인 어감의 단어들도 있지만, '(연애, 결혼, 출산, 경력 등 N가지를 포기한) N포 세대', '(영혼까지 팔아서 뭔가를 해야하는) 영팔', '(부의) 양극화' 등 시대를 힘겹게 사는 이들의 '피, 땀, 눈물' 어린 슬픈 상징 어휘들도 보입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편승한 기성세대의 잘못이 크다는 공감대가 있고, 미안함에 젊은 세대의 고통에 더 귀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감의 출발은 소통입니다. 거대 담론이나 구조적 모순은 국가나 사회 단위의 시스템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 말고, 작은 단위의 소통 역시 세대 갈등 해소와 통합에 매우 중요합니다. 소규모 소통 공간의 대표가 가족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모인 가정에서의 공감 소통을 통해 소소한 세대 통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정 내 소통에서 대부분 겪는 문제는 어리거나 젊은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일 겁니다. 사춘기를 지날 무렵부터 발생하는 갖가지 갈등 상황이 집안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고, 자녀가 어렸을 때 만개했던 화목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제 주변 10대를 둔 부모들이 한숨을 쉬며 내놓은 얘기들은 대부분 이런 분위기입니다. 천사같이 귀엽던 어릴적 사진을 보며 울분을 억누른다고 합니다.

소통의 기본은 언어를 통한 의사전달인데, 여기에는 표정, 몸짓, 미세한 손짓 등 여러가지 '비언어적' 요소들도 포함됩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다녀왔습니다'라는 말을 툭 던지고 자기방으로 휩 들어가면, 그 몸짓 표현에 부모는 우울할 정도로 슬퍼집니다. 감정을 응축해 표현하는 몸짓 언어 말고도 세대 간 소통을 어렵게 하는 요소는 또 있습니다.

'땡작', '머박', '커여다', 'ㅇㅈ', 'ㅇㅇㅈ', 'ㄱㅇㄷ'

젊은 세대들이 자주 쓰는 말들입니다. 무슨 암호같은 이 말들을 해독해보면, '땡작=땡작, 머박=대박, 커여다=귀엽다, ㅇㅈ=인정, ㅇㅇㅈ=어, 인정, ㄱㅇㄷ=개이득'입니다. 나름대로 조어(造語) 원칙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세대들이 익혀서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도 한번 유추해보시기 바랍니다. '머통령, 윙훤훤곡, 팔도네넌뎌, 다만추, 다꾸, 킴반은.....'

해외 교포 가정의 세대간 갈등에 대해 종종 듣습니다. 현지어에 서툰 1세대, 현지어와 모국어어를 적당하게 하는 2세대, 그리고 모국어보다 현지어를 더 잘하는 3세대... 여러 이유로 고국을 떠나 살게 되면서 언어 문제로 세대 소통이 어려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옛 세대들이 열심히 현지어를 익히고, 또 후손 세대들이 모국어어를 잊지 않도록 (조)부모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지만 완전히 해소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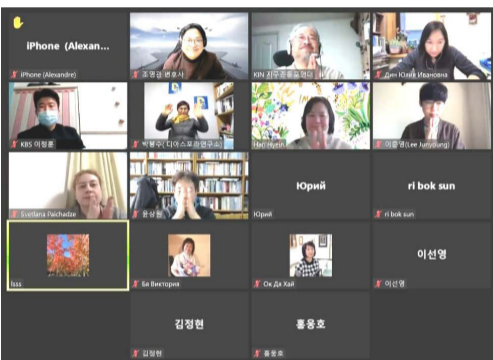
그런데, 멀쩡히 같은 언어를 쓰는 국내 가정에서, 암호같은 말을 사용하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간의 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도 알아듣기 힘든 단어들, 허공에 떠다니는 이들과의 감성 커뮤니케이션이 벽에 닿는 경험을 수도없이 하게 되죠.

MZ 세대가 겪는 구조적인 문제들은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잘 해결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정내 소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난감합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현지어를 배우는 교포 1세대의 마음으로 MZ세대의 언어를 배우도록 노력해야 할까요? 그래야만 '머박' '커여운' (대박 귀여운) 우리 아이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려나 봅니다.

신원섭 KBS라디오 편성기획국장/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객원교수

미즈호 마을 사할린 한인 학살 사건에 대한 포럼 열려

지난 1월 9일(일), 사할린 한인 학살 사건 중 미즈호 마을 학살사건에 대한 온라인 포럼이 열렸다. KIN(지구촌 동포연대)과 사할린 향토박물관 진 율리아 박사가 함께 주최한 이번 포럼에 한국과 러시아(모스크바, 사할린), 일본 홋카이도에서 사할린 한인 연구자들, 동포들이 참석하였으며, 2019년 사할린 한인 학살사건 관련 서류를 방영했던 KBS 이정훈 기자도 의견을 나누었다.



해제된 기록물들을 연구하여 결과를 전시하고, 연구성과를 출판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구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희생자들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상구 사무국장(KIN)은 "희생자를 호명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되는 것이고, 유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비밀해제와 연구 목표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는 비밀해제 문서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충 자료 확보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한국, 일본의 연구자들이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사 기자)

이번 포럼에서 발표한 진 율리아 박사의 발표문을 다음 호에 게재한다. (편집부)

최근 미즈호 마을 사건에 대한 심문조서, 재판 기록물 등 그 동안 비밀문서들이 비밀해제되어 사할린 향토박물관 문서보관소로 이관되었다. 이는 진 율리아 박사가 기록물 공개 신청에 따른 것으로 작년 하바롭스크에서 열렸던 일본군 전범재판에 대한 포럼을 계기로 러시아의 비밀문서가 70년이 지나면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비밀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진 율리아 박사는 전체 3권, 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비밀이

이모저모

(2편의 계속)

Афиша для взрослых в эти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отличалась разнообразием: на большой сцене прошли показы любимых комедий "Зимний вечер в кабаре" (18+), "Смешные деньги" (16+), "Дамский портной" (16+), "Про Федота-стрельца, удалого молодца" (12+), "Боинг-Боинг" (16+) и свежей премьеры — спектакля #Люблюнемогу (16+).

Традиционно Чехов-центр в новогодние праздники занимаетс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ью. Дед Мороз и Снегурочка из Чехов-центра вмест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енщин России" отправились в областную детскую больницу, чтобы поздравить ребят, оказавшихся в пред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в этом медицинском учреждении. В Рождество артисты Чехов-центра показали сказку для детей из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Праздник прошел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и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и Курильской епархие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театра.

사할린 주민들 거의가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할린주 주민들이 물품 구매와 서비스 비용 지불을 카드로 더 자주 결제하게 되었다.

2021년 9개월간 카드 결제 이용률은 96.2%로 전년에 비해 1% 증가했다고 중앙은행 홍보과가 전했다. 사할린 지역에서 2021년 10월 1일에는 물품 구매와 서비스 비용 결제에 비현금 거래가 2020년 유사기간에 비해 13.4% 증가한 가운데 1억4천4백만 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이런 방식의 거래액은 2천 50억 루블리에 달한다.

동시에 현금인출기 이용률도 11% 감소한 5백50만 건이었고, 2021년 9개월 동안 사할린 주민들은 전년 유사시기 대비 38억 루블리 적게 인출하여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다.

"사람들의 현금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비현금

결제 서비스와 제반시설의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현금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설치하고, 은행들은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이미 간편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수수료 없는 신속한 송금 덕에 원거리 주거 지역을 포함해 주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되었다."고 러시아 중앙은행 사할린 지부 결제시스템 및 회계과의 스웨틀라나 멜레쉬키나가 말했다.

Сахалинцы почти перестали пользоваться наличкой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ли чаще оплачивать товары и услуги картами. Доля таких платежей по итогам 9 месяцев 2021 года составила 96,2%,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1 процентный пункт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оказателе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ообщает ИА Сах.ком со ссылкой на пресс-службу отделения Центробанка.

На 1 октября 2021 года количество операций по безналичной оплате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в регионе выросло на 13,4%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2020 года, превысив 144 млн транзакций. Сумма средств по данным операциям составила более 205 млрд рублей.

В то же время количество операций по снятию наличных в банкоматах сократилось на 11%, до 5,5 млн. Уменьшился и их объем: за три квартала текущего года сахалинцы сняли на 3,8 млрд рублей меньше, чем в аналогичном периоде годом ранее.

"Люди все меньше используют наличные. Это связано с развитием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сервисов безналичных платежей: все больш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устанавливают терминалы для безналичной оплаты, банки продолжают расширять спектр оказываемых онлайн-услуг.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уже подключились к системе быстрых платежей,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мгновенные денежные переводы без комиссии стали доступнее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в том числе отдален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 рассказа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платежных систем и расчетов отделения Банка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етлана Мелешкина.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О трагедии деревни Мидзухо поговорили ученые и общественники

9 января состоялась онлайн-встреча ученых-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оссии (Сахалин, Москва),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 Японии (Хоккайдо). Поводом для встречи послужила передача Сахалинскому краеведческому музею рассекрече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уголовного дела японцев, которые в августе 1945 г., до прихода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на Южный Сахалин, совершили массовые убийства мирных корейских жителей деревни Мидзухо (ныне село Пожарское).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стречи стал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ИН и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Юлия Дин.

Историк Дин Юлия сообщила, что научный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проведенно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просной работы на фоне 75-летия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олучил 3 тома (около 1000 страниц) материалов. Она также рассказала о малоизвестных фактах этих траг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О том, что предстоит установить 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погибших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ский историк надеется, что ей удастся опубликовать материалы дан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а также организовать в музее выставку рассекрече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Наш корр.)

Непредвиденный казахстанский транзит авиарейса компании Asiana

Сеул, 12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Ожидается,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ассажирский самолет, приземлившийся в Казахстане на фоне анти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протестов, вернется домой в конце этой недели, как только крупнейший аэропорт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озобновит работу, сообщило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йс авиакомпании Asiana Airlines Inc.,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еревозчика, на борту которого находились десятки южнокорейцев, был задержан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эропорту Алматы с момента его приземления в минувшую среду, когда протестующие взяли под контроль главные воздушные ворота страны.

Министерство сообщило, что Asiana готовит к вылету рейса в полдень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в четверг, хотя расписание может меня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итуации в аэропорту.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из 37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ассажиров и членов экипажа воздушного судна 22 отправились домой другими способами или в другие безопасные места в Казахстане, в то время как 15 все еще находятся в местных отелях.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еула окажет необходимую поддержку гражданам Южной Кореи,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безопасно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добавило оно.

Еще около 50 граждан Южной Кореи, включая пассажиров, членов экипажа и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выразили желание вылететь в Южную Корею на самолете Asiana, сообщил информированный источник.

«Мы думали, что пандем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 это беда, оказалось, что есть беда страшнее...»

Террор, мародёрство и зверские убийства невозможно оправдать.

Сегодня день траура по всем павшим от рук террористов. Мы выражаем глубочайш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всем семьям, которые потеряли близких в эти тяжёлые дни. Теперь мы в полной мере осознали насколько важны мир и согласие. Эти непреложные истины всегда были основой развития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и сегодня, когда внешние и внутренние провокаторы вредят нашей Родине, они становятся самыми ценными и важными.

Сейчас все казахстанцы обеспокоены ситуацией в стране, и мы не можем просто наблюдать. От лица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и всех наш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ыражаем искреннюю поддержку Президенту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 всем, кто участвует в это сложное время в устранении беспорядков. Мы будем максималь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о всех процессах стабилизации ситуации в Казахстане. Сплотившись, проявив единство, мы сможем преодолеть все испытания.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11 января 2021 г.)



Сергей Огаев, президент ОЮЛ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Сеульская аудитория русского авангар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Сеул, 12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Кандинский, Малевич и русский авангард» — выставка под таким названием открылась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Седжон в Сеуле. Представленная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известных рус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она проливает свет на важнейшее движение рус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Южной Кореей составляет всего 31 год, что является относительно коротким периодом. Тем не менее, две страны построили прочные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за такое короткое время», — заявил посол России в Южной Корее Андрей Кулик во время открытия выставки.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 широкий круг россий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от пионеров абстракционизма Василия Кандинского и Казимира Малевича до Натальи Гончаровой и Александра Родченко, чьи работы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на фотографию и дизайн.

Посол Кулик отметил культурный обмен как одно из наиболее успеш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Южной Кореей.

«Культурный обмен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различные области, включая оперу, балет и искусство, а также обмены между университетами, воспитывающими художников и музыкантов», — сказал Кулик. — «Я думаю, что причина актив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Южной Кореей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русские и корейц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друг в друге и хотят узнать больше друг о друге».

Несмотря на пандемию COVID-19, Россия и Южная Корея провели ряд мероприятий в рамках южно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года взаимных обменов с 2020 по 2021 год по случаю 3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Эти культурные обмены входят в историю двух стран и укрепляют связи между людьми», — сказал посол, добавив,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будет больше интересных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проектов.

«Я выража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министерству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и друг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 част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которые осуществляют культурные обмены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Южной Кореей. Я также благодарю как российскую, так и корейскую стороны за организацию этой выставки, несмотря на сложную ситуацию».

Русское авангардное искусство процветало в России в конце 19-го и начале 20-го веков, но уступило место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му реализму,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1922 году был создан Советский Союз. Русское авангардное искусств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заново открывается как способ расширить сферу истории искусства, поскольку оно повлияло на развитие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Среди художников Кандинский и Малевич оба исследовали геометрические фигуры, но различаются по стилю. Кандинский использовал абстрактный геометрический стиль для изображения универсальных чувств и идей, в то время как Малевич больше интересовался отношениями между цветами и геометрическими формами и изобрел супрематиз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движение, основанное на основах геометрии.

Кандинский более известен тем, что позже он переехал в Германию и Париж и был включен в историю зап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Однако Малевич остался в России и поэтому менее известен во всем мире.

Основные экспонаты выставки включают «Импровизацию» (1913) Кандинского и «Супрематизм» (1915) Малевича, а также работы Гончаровой, вдохновленные народным искусством, и графический дизайн Родченко, который приблизил искусство к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После осмотра выставки посол сказал, что она очень хорошо отражает суть русского авангардного движения, подчеркивая его значимость.

«Эти работы показывают, как русский авангард сформировал не только русское искусство, но и оказал влияние на искусство во всем мире», — сказал он. — «Выставка также играет ключевую роль в продвижении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Южной Кореей. Я надеюсь, что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придут посмотреть на русское авангардное искусство».

Василий Кандинский, основоположник абстракционизма в живописи

Организацией выставки занимались Екатеринбургский музей изобразительных искусств, Нижегород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Красноярски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им. В.И. Сурикова, Приморск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картинная галерея. Каждый из музеев предоставил для экспозиции подлинники художников.

Выставка продлится до 17 апреля.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хеньян подтвердил запуск гиперзвуковой ракеты

12 января газета «Нодон синмун», главный печатный орган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сообщил об успешных испытаниях гиперзвуковой ракеты, запущенной 11 января.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в ходе финального запуска была убедительно подтверждена превосходная манёвренность гиперзвукового планирующего лет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Гиперзвуковой планирующий блок отделился от ракеты на рубеже в 600 километров, после чего поразил установленную цель на море на расстоянии одной тысячи километров», - написала газета. На опубликованных фото запуска ракеты видно, что внешне она схожа с той, что была запущена 5 января. Ранее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сообщило, что ракета, запущенная 5 января, совершила горизонтальное перемещение на 120 км от первоначального азимута пуска и точно поразила установленную цель на расстоянии 700 км. На основании этого можно сделать вывод о том, что в ходе запуска 11 января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более высокие достижения.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за запуском лично наблюдал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Он отметил, что создание гиперзвукового оружия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целей пятилетнего плана развит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обороны, и выразил особ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разработчикам ракеты.

С 14 января в РК начнётся применение препарата Paxlovid

С 14 января в РК начнётся применение перорального препарата от Pfizer для лечения COVID-19. Он буде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сред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и аптек. Об этом 12 января сообщили в Центральном штабе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РК. 21 тыс. доз препарата под названием Paxlovid от компании Pfizer должны быть доставлены в РК 13 января, ещё одна партия из 10 тыс. доз к концу января. Paxlovid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пациентам с высоким риском тяжёлых последствий заражения COVID-19 в течение пяти дней после появления симптомов. Первая партия буде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среди лиц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65 лет или со слабой иммунной системой. Препарат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населению бесплатно.

Командование ООН приостановит туры в Пханмунчжом

Доступ к межкорейскому пограничному пункту Пханмунчжом для гражданских лиц будет закрыт с 18 января из-за напряжённой 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РК. Об этом 12 января сообщило Командование ООН (UNC). Так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всего через два месяца после возобновления программы посещения пункта Пханмунчжо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введением в стране схемы перехода к жизни с COVID-19. Командование ООН принимало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в тесной координации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Митинг проти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исполняется 30 лет

5 января перед бывшим зданием посольства Японии в центре Сеула был проведён 1.525-й по счёту митинг, который проводят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женщин,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Корейский совет по делам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Первый такой митинг состоялся 30 лет назад, 8 января 1992 года,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в РК тогдашнег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Киити Миядзавы. С тех пор митинги проходят каждую среду. Жертвы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и простые южнокорейцы требуют от японских властей официальных извинений и законной компенсации. Они надеются на то, что данная проблема будет решена, а права и достоинство жертв будут восстановлены. По окончании мероприятия его участники прошли мимо зда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Южнокорейский актёр О Ён Су удостоен премии «Золотой глобус»

77-летн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актёр О Ён Су удостоен премии «Золотой глобус»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актёр второго плана в телесериале» за роль в сериале «Игра в кальмара». Его соперниками в борьбе за награду были Билли Крадап и Марк Дюпласс из «Утреннего шоу», Киран Калкин из «Наследника» и Бретт Голдстейн из «Теда Лассо». 79-я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Золотого глобуса» прошла 9 января в отеле «Бeverly Хилтон» в Лос-Анджелесе без зрителей и без телевизионной трансляции. Знамениты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ериал «Игра в кальмары» был также номинирован на «Золотой глобус» в категориях: «Лучший фильм - сериал» и «Лучший актёр в драматическом сериале». «Золотой глобус» - американская премия, присуждаемая Голливудской ассоциацией иностранной прессы с 1944 года за работы в кинофильмах и телевизионных картинах. Она вручается каждый год в январе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голосования около 90 международ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аккредитованных при Голливуде.

(RKI)

Сбежавший 1 января в КНДР человек оказалс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гимнастом-перебежчиком

Неожиданное развитие получил сюжет со случившимся 1 января побегом в КНДР из Южной Кореи неизвестного человека. Как считают сейчас в Сеуле, беглецом оказался бывши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гимнаст-перебежчик, который в ноябре 2020г. таким же образом перепрыгнул через все пограничные ограждения, чем тогда изрядно удивил контрразведку Юга.

Напомним, что согласно заявлению Объединё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КНШ ВС РК), вечером 1 января в 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в уезде Косон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 неизвестный человек преодолел все заграждения, включая высокие заборы и колючую проволоку, и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 попал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территорию.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позже, аппаратура слежения и сигнализации трижды фиксировала факт появления неизвестного лица, но военные РК не смогли адекватно отреагировать, узнав о побеге только после пересечения человеком самой линии границы с КНДР. Это вызвало шквал критики в адрес действий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ограничников, которые за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еоднократно допускали пересечение границы в обе стороны посторонними.

3 январ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и прокуратуры РК огласили некоторые предположения по поводу обстоятельств побега, которые они выявили с участием сотрудников разведки. Сюжет с побегом оказывается весьма занимательным и достоин как сюжета боевика, так и трагикомедии. Согласн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выводам, 1 января нынешнего года в КНДР убежал тот самый северокореец-гимнаст, который в начале ноября 2020г. таким же способом прибыл на Юг, чем наделал немало шума, став на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героем мемов и шуток.

Тогда он сумел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 преодолеть все заграждения в районе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ы и целых 14 часов бродил по ней, пока наконец не был задержан южнокорейским пограничным патрулем. В ходе допроса следователей Южной Коре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интересовало, как он смог тогда спокойно преодолеть все препятствия, включая трехметровые заборы с колючей проволокой. Беглец сообщил, что он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занимался спортивной гимнастикой, име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навыки, кое-где пользовался шестом, а потому заграждения не стали для него особой проблемой. Следователи не сразу ему поверили, и дело даже дошло до предложения показать снова, как он это сделал, на примере тех же пограничных заборов. Перебежчик дважды на глазах «экзаменаторов» повторил свои «акробатические номера», после чего все вопросы были сняты и ему поверили.

Похоже,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очень хорошо помнили тот случай, а потому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на многие сходства: преодоление ДМЗ 1 января было совершено примерно в том же самом месте, что и в ноя-

бре 2020г., кто-то тоже, похоже, очень хорошо "скакал" через заборы и был схожего телосложения. По словам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нобороны РК, они изучили записи перехода в ноябре 2020г. и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что 1 января в КНДР ушел тот же самый человек. Ограждения он преодолел все тем же способом, что и в 2020г. и хорошо знал местность. "В этом ему помогли его спортивные навыки, а также относительно легкий вес - около 50 кг", - пояснил источник.

Хотя пока официально минобороны и прокуратура РК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их выводы не являются окончательными, но все подтверждает версию о вернувшемся "дом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гимнасте. Когда началось расследование и с ним попытались связаться, то его телефон был выключен, а самого его так и не смогли найти. Также было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в Южной Корее он не смог особо хорошо устроиться: испытывал серьез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трудности, работал уборщиком мусора и жил недалеко от того района, где пересек границу.

В минобороны РК отказались предоставлять какие-либо дальнейшие подробности, отметив лишь, что они не считают убежавшего северокорейца шпионом, а полагают, что он просто не выдержал условий жизни в новом обществе.

Отметим, что это в чем-то напоминает случай в июле 2020 года. Тогда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через остров Канхвадо вплавь вернулся бывши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перебежчик, который за три года до этого прибыл в Южную Корею. На новом месте у него были проблемы с деньгами, его обвинила в изнасиловании другая перебежчица и он был под следствием, решив в итоге вернуться в КНДР. По возвращению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если верить СМИ Страны чучхе, его не стали наказывать, позволив работать там, где он захочет, превратив всю историю в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й сюжет. Вероятно, что "гимнаст" все это хорошо знал и не побоялся вернуться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оенные РК отметили, что они дважды по установленным каналам экстренной связи уведомил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коллег об инциденте, попросив подтвердить личность перебежчика. В КНДР приняли сообщения, но пока никакого ответа не последовало. В то же время южане увидели, что к "гимнасту"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НДР подошли тро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и после этого они ушли все вместе далее на север.

В Южной Корее тем временем все громче слышна критика в адрес поведения собственных пограничников и состояния охраны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РК Со Ук посещал ДМЗ и приказал подчиненным обеспечить самую тщательную охрану пограничных рубежей. Однако, если цитировать некоторы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Интернета, "инцидент показал,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цы могут ходить туда-обратно, когда им заблагорассудитс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Пхеньян сообщил об успешных испытаниях «гиперзвуковой» ракеты

6 январ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ообщила о проведенных накануне успешных испытаниях «гиперзвуковой» ракеты.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ракета совершила «горизонтальное перемещение на 120 км от первоначального азимута пуска и точно поразила установленную цель на расстоянии 700 км». О скорости полёта не сообщается. «Испытательный запуск нагляд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управляемость и стабильность гиперзвуковой планирующей боевой части, которая сочетает в себе многоступенчатый планирующий прыжковый полёт и сильное боковое движение». В ходе испытания «подтверждена надёжность топливной ампульной системы в зимних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ях»,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ЦТАК. В нём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также, что разработка гиперзвуковых ракет является «важнейшей из пяти первоочередных задач сектор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вооружений».

Ранее Объединённый комитет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сообщил о запуске,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с наземной установки в сторону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с территории провинции Чагандо. По данным японской береговой охраны, ракета упала в Восточное море за пределами исключите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ы Японии. Гиперзвуковые ракеты обычно летают со скоростью не менее 5 Махов, или 6.125 километров в час, оставляя противнику мало времени для ответ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вела первый испытательный запуск гиперзвуковой ракеты «Хвасон-8»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на достигла скорости около 3 Махов. По мнению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новая ракета находится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разработки, и «для её фактического развертывания потребуется значительное время».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месяц — 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임인년

음력설

2.1

한식

4.6

단오

6.3

초복

7.16

중복

7.26

말복

8.15

추석

9.10

성탄절

12.25



	1월 음력 11-12월					2월 음력 1월					3월 음력 1-2월					
월	3 12.1	10 8	17 15	24 22	31 29		7 7	14 14	21 21	28 28		7 5	14 12	21 19	28 26	
화	4 2	11 9	18 16	25 23		1 1.1	8 8	15 15	22 22		1 1.29	8 6	15 13	22 20	29 27	
수	5 3	12 10	19 17	26 24		2 2	9 9	16 16	23 23		2 30	9 7	16 14	23 21	30 28	
목	6 4	13 11	20 18	27 25		3 3	10 10	17 17	24 24		3 2.1	10 8	17 15	24 22	31 29	
금	7 5	14 12	21 19	28 26		4 4	11 11	18 18	25 25		4 2	11 9	18 16	25 23		
토	1 11.29	8 6	15 13	22 20	29 27		5 5	12 12	19 19	26 26		5 3	12 10	19 17	26 24	
일	2 30	9 7	16 14	23 21	30 28		6 6	13 13	20 20	27 27		6 4	13 11	20 18	27 25	
	4월 음력 3월					5월 음력 4-5월					6월 음력 5-6월					
월	4 4	11 11	18 18	25 25		2 2	9 9	16 16	23 23	30 5.1		6 8	13 15	20 22	27 29	
화	5 5	12 12	19 19	26 26		3 3	10 10	17 17	24 24	31 2		7 9	14 16	21 23	28 30	
수	6 6	13 13	20 20	27 27		4 4	11 11	18 18	25 25		1 5.3	8 10	15 17	22 24	29 6.1	
목	7 7	14 14	21 21	28 28		5 5	12 12	19 19	26 26		2 4	9 11	16 18	23 25	30 2	
금	1 3.1	8 8	15 15	22 22	29 29		6 6	13 13	20 20	27 27		3 5	10 12	17 19	24 26	
토	2 2	9 9	16 16	23 23	30 30		7 7	14 14	21 21	28 28		4 6	11 13	18 20	25 27	
일	3 3	10 10	17 17	24 24		1 4.1	8 8	15 15	22 22	29 29		5 7	12 14	19 21	26 28	
	7월 음력 6-7월					8월 음력 7-8월					9월 음력 8-9월					
월	4 6	11 13	18 20	25 27		1 7.4	8 11	15 18	22 25	29 3		5 10	12 17	19 24	26 9.1	
화	5 7	12 14	19 21	26 28		2 5	9 12	16 19	23 26	30 4		6 11	13 18	20 25	27 2	
수	6 8	13 15	20 22	27 29		3 6	10 13	17 20	24 27	31 5		7 12	14 19	21 26	28 3	
목	7 9	14 16	21 23	28 30		4 7	11 14	18 21	25 28		1 8.6	8 13	15 20	22 27	29 4	
금	1 6.3	8 10	15 17	22 24	29 7.1		5 8	12 15	19 22	26 29		2 7	9 14	16 21	23 28	30 5
토	2 4	9 11	16 18	23 25	30 2		6 9	13 16	20 23	27 8.1		3 8	10 15	17 22	24 29	
일	3 5	10 12	17 19	24 26	31 3		7 10	14 17	21 24	28 2		4 9	11 16	18 23	25 30	
	10월 음력 9-10월					11월 음력 10-11월					12월 음력 11-12월					
월	3 8	10 15	17 22	24 29	31 7		7 14	14 21	21 28	28 5		5 12	12 19	19 26	26 4	
화	4 9	11 16	18 23	25 10.1		1 10.8	8 15	15 22	22 29	29 6		6 13	13 20	20 27	27 5	
수	5 10	12 17	19 24	26 2		2 9	9 16	16 23	23 30	30 7		7 14	14 21	21 28	28 6	
목	6 11	13 18	20 25	27 3		3 10	10 17	17 24	24 11.1		1 11.8	8 15	15 22	22 29	29 7	
금	7 12	14 19	21 26	28 4		4 11	11 18	18 25	25 2		2 9	9 16	16 23	23 12.1	30 8	
토	1 9.6	8 13	15 20	22 27	29 5		5 12	12 19	19 26	26 3		3 10	10 17	17 24	24 9	
일	2 7	9 14	16 21	23 28	30 6		6 13	13 20	20 27	27 4		4 11	11 18	18 25	25 3	

절기	소	대	입	우	경	춘	청	곡	입	소	망	하	소	대	입	처	백	추	한	상	입	소	대	동	
(양력)	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일	5	20	4	19	5	21	5	20	5	21	6	21	7	23	7	23	8	23	8	23	7	22	7	22



광산구 고려인마을에 홍범도 장군 공원 조성 추진

공원 조성 추진위원회 출범6월 장군 흉상 건립 목표

광산구 고려인마을에 홍범도 장군의 항일독립정신을 새긴 공원과 흉상이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산구에 따르면 홍범도공원 설립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광산구 고려인 미디어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추진위는 월곡동 주민이자 홍범도 장군의 후손인 남양 홍씨 전국 종친회 홍우표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지자체, 시·구의원, 지역주민, 고려인마을 주민 등 관계인사와 해외 카자흐스탄 한인회 대표 등이 추진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1994년 장군의 유해를 모시기 위한 남북한의 외교전이 극심했을 당시 카자흐스탄에 있는 장군 묘역을 관리했던 장원창 전 사할린 한국교육원도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추진위는 오는 6월 고려인마을이 있는 월곡2동 다모아어린이공원에 홍범도 장군 공원을 만들고, 장군 흉상을 세우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 가운데, 항일투쟁에 앞장선 고려인 후손이 모여 사는 곳에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상징적인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홍범도 공원 설립추진위원회 출범. <광산구 제공>

광산구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월곡 고려인문화관'을 개관, 강제이주, 항일투쟁 등 고려인의 역사와 삶, 문화, 이야기를 알리고 있다.

8월 15일에는 장군의 유해 봉환을 기념한 특별전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자료를 공개하며, 전국 각지에서 발길이 이어지기도 했다. 홍범도 장군 공원은 고려인문화관과 함께 월곡동과 고려인마을을 대한민국 대표 역사탐방 명소로 만드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이 만들어지면 광산구는 홍범도 장군이 태어난 평양, 독립투쟁을 한 간도와 연해주 일대, 후손을 돌보고 가르쳤던 카자흐

스탄 크질오르다, 유해가 잠든 대전 유성구에 이은 '여섯 번째 고향'이 된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돈국 광산구 부구청장은 "홍범도 장군 공원과 함께 고려인마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교육의 명소이자 관광지가 될 것"이라며 "여러 나라의 문화가 융합된 '랜드마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 월곡동은 지난 2001년을 시작으로 독립투사의 후손인 고려인이 이주해 오면서 고려인마을이 형성됐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사례로, 현재는 5000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광주일보, 2022.01.05)

[우리말로 깨닫다]

천국이 따로 없다

종교를 믿는 많은 사람의 소망은 천국이나 천당에 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좋은 곳이라고 하니 가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고통스러우니 다음 세상에서는 꼭 행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겠죠.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이나 다음 세상에서는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래도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확신은 있는 것 같아 놀랍습니다. 별로 종교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내세는 은연중에 믿고 삽니다. 좋은 곳으로 가기 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종교는 그 물음에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것이겠죠. 종교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종교가 결국은 하나로 통한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종교라면 좀 의심을 해 봐야 합니다.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베풀고, 배려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가는 건 쉬운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마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를 계획하면 사실 괴로운 것은 자신입니다. 용서는 그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라는 말이 참으로 맞습니다.

아픈 이를 보면 고쳐주려고 하고, 힘든 이를 만나면 몸소 도와주려고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돈으로 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내 몸으로 돕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작은 힘으로 그에게 힘이 된다면 기쁜 일입니다. 살면서 느끼는 보람입니다. 나도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자각, 그것을 인정받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욕심이야말로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돈 욕심으로 가족도 친구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지려는 마음 때문에 천국은 멀어집니다. 성(性)의 욕심도 말할 나위가 없겠죠. 지나친 욕심으로 수많은 관계가 망가집니다. 천국을 이야기할 때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늘 따라오는 이유일 겁니다.

생각해 보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의 상징 파랑새를 찾으러 다니다가 끝내 못 찾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에 파랑새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에 쉽게 공감하는 것은 우리 모두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는 잘못 알려진 속설이라고 합니다만 네 잎 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임에 비해서, 세 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는 말은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런데 모든 세 잎 클로버가 행복일까요? 분명 그 가운데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행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순간을 삶의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 그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행복이 가까이에 있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천국이 가까이에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쩌면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보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많은 종교는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면 지금이 천국이 됩니다. 내가 천국의 시작이 됩니다. 나도 내 주변도 모두 천국이 됩니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충남도, 공공외교 폭 넓히고 깊이 더한다

코로나19 파고넘어 신남방·신북방 등과 '디지털 외교' 등 지속

충남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또 공공외교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한다.

도는 올해 우선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에 발맞춰 중동에 위치한 바레인 마나마주와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11월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는 본격적인 교류를 기념해 양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영

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러시아 사할린 지역 한인 후손들을 대상으로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지원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추후 중앙아시아 고려인과 중국동포까지 확장, 신북방 지역 한인들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국과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독립운동 역사 공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일본과는 지난해에 이어 K-팝을 주체

로 청소년 문화 교류를 확대, 미래세대를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한다.

홍만표 도 국제통상과장은 "코로나 장기화 및 세계질서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난해 비대면 디지털 공공외교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남방과 신북방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주까지 국제교류 지평을 넓혀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내포 뉴스밴드)

2021년을 돌이켜보며

새고려신문에 게재된 사할린 한인 사회계의 주요 사업·행사·사건

(2편의 계속)

9월 6일-7일 - 하바롭스크에서 일본군 전범 재판을 주제로 국제포럼 개최. 포럼에 사할린한인들도 참석해 사할린 한인사, 강제동원 역사 등 발표.

9월 10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옆 <아리랑>소공원 개장. (본지 9월 17일호).

9월 18일 - 사할린주한인협회 주최로 가가린공원에서 <김치>축제 개최. (본지 9월 24일호).

9월 19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잔치 마련. (본지 9월 24일호).

9월 24일 - 사할린주미술박물관에서 <새들이 구름 위를 날아간다>미술전시회가 열려 미술관이 소장한 한민족의 한복, 도자기, 그림, 화화탈 등이 전시됨.

9월 25일 - 1세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실시. 이와 관련 행사들이 10월, 11월에 이어졌다.

10월-11월 간 -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15주년 기념 행사들이 펼쳐졌음. 자

가) **10월 16일** - <사할린의 가을>무술대회 개최.

나) **10월 23일** - <어머니의 비결>요리체험실 진행.

다) **10월 30일** - <장인들의 박람회>한민족 문화체험 축제.

라) **11월 6일** - <빤세>요리체험교실 진행.

마) **11월 13일** - 씨름대회 개최.

바) **11월 20일** -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기념 행사 개최.

10월 18일 - 1세들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11월 중순 - 사할린 보안국에 보관된, 1945년 미즈호 한인 학살 사건에 관한 사료가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11월 23일 - 한국 정부, 제2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할린동포법 시행 현황 등 논의.

11월 26일 -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공연.

11월 27일 - 본격적 영주귀국 시작. 이날 사할린에서 1차로 약 90명, 12월 4일에 2차로 약 90명이 한국으로 영주귀국.

11월 27일 - 러시아 어머니의 날 기념 행사 개최(주최: 사할린주한인여성회).

11월 27일 - 대구에서 제6회<사할린의 밤>개최. (주최: 민족통일대구청년협의회).

12월 3일 - 사할린 국립대,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12월 중순 - 사할린동포를 갈라놓는 사할린동포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국 민간단체들의 성명서와 사할린 주한인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청원문 발표. (본지 12월 17일호).

12월 23일 - 서울, 한국 외교부 '사할린동포법 제정 및 영주귀국 기념식'을 개최. (본지 12월 24일호).

(본사 편집부)

[러시아 사할린동포 한국어교육 온라인 수강생 모집]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사할린한국교육원

1. 강의 운영 계획

강좌 구분	1학기 기간	2학기 기간	시간	대상자	교육 내용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토픽 II)	11주, 100시간 2022.02.03.~04.11. (1일 3시간)	11주, 100시간 2022.07.22.~10.17. (1일 3시간)	사할린 시각 18:00~21:00	토픽 3,4급 취득 을 희망하는 한국 어 학습자	문제 유형 파악 연습문제 풀이 등
고급 한국어	17주, 100시간 2022.02.07.~06.10. (1일 2시간)	17주, 100시간 2022.08.22.~12.23.. (1일 2시간)	사할린 시각 18:00~20:00	한국어중급과정 이수한 학습자	사회문화, 정치 등 다양한 주 제에 대한 지식, 토론 등

2. 참여(신청 방법)

- (1) (대)학생
 - 한국어체택교 학생은 한국어 선생님(교수)께 신청 ▶ 교육원 제출
 - 기타 학교 학생은 한국교육원으로 전화(☎: 505696) 후 방문 신청
- (2) 기타 참가 희망자 : 한국교육원으로 전화(☎: 505696) 후 방문, 신청서 제출
- (3) 한국교육원 『한국어 중급 과정』 이수자 : 강사님께 신청 또는 교육원에 방문 하여 신청서 제출
- (4) 신청 기한 : 2022.1.28.(금)
- (5) 각 학급 15명 내외 참석 가능, 온라인(ZOOM)으로 참여하므로 가능한 자신의 네트워크 여건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교육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http://sakhalinedu.com>)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
사할린한국교육원장

81회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모집 공고

- 기간 및 장소
 - 원서 접수 기간: 2022년 1월 11일~1월 31일(평일 09:00~17:00)
 - 원서 접수 장소: 사할린 한국교육원(전화 4242-505-696)
- 원서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수용인원(100명)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직계 가족 외에 대리 접수 불가.
- 응시 수수료: (TOPIK1) 1,000루블, (TOPIK2) 1,200루블
- 접수시 준비물: 증명사진 1매(3cm×4cm), 응시 수수료, 신분증
- 성적 발표: 2022년 11월 25일
 - 성적증명서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무료 출력 가능
- 시험 일자: 2022년 4월 10일(일)
- 시험 장소 : 사할린한국교육원(사할린한인 문화센터 내)

Реклама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